

신북방경제실 러시아·유라시아팀

(중앙아시아) 코로나19 관련 동향

2020.4.24.

1. 확산 동향

- 중앙아시아 5개국 중 3개국에서는 3월 13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으며, 나머지 2개국은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.
 - (카자흐스탄) 현재 확진자 수는 2,289명이며, 완치는 560건, 사망은 21건임.
 - (우즈베키스탄) 현재 확진자 수는 1,758명이며, 완치는 561건, 사망은 7건임.
 - (키르기스공화국) 현재 확진자 수는 631명이며, 완치는 302건, 사망은 8건임.
 -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식 확진자 수는 0명임.

2. 경제적 영향

- 중앙아시아는 경제구조가 원자재에 편중되어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급감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.
 - (카자흐스탄) 유가 하락과 생산 감소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3.9%에서 -2.5%로 조정되었음.¹⁾
 - 카자흐스탄은 2020년 예산을 유가 55달러 기반으로 책정했으나, 4월 초 20달러로 재조정했음.²⁾
 - (우즈베키스탄) 세계경제침체 여파로 교역량과 해외투자가 급감해 2020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6.0%에서 1.8% 수준으로 조정됨.³⁾
 -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거주하며 식료품 자급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바, 수입품의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⁴⁾
 -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1~2월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대중국 수출은 각각 17%, 35% 감소했으며, 키르기스공화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12% 감소했음.⁵⁾

1) IMF, 'World Economic Outlook, October 2019: Global Manufacturing Downturn, Rising Trade Barriers'; IMF, 'World Economic Outlook, April 2020: Chapter 1'.

2) REPORT.AZ(2020. 4. 8). 'Казахстан откорректировал бюджет с учетом цены на нефть в 20 долларов'.

3) IMF, 'World Economic Outlook, October 2019: Global Manufacturing Downturn, Rising Trade Barriers'; IMF, 'World Economic Outlook, April 2020: Chapter 1'.

4) DW(2020. 4. 19), '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спасают свою экономику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'.

3. 코로나19 확산방지책

-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확진자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, 통제를 일부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함.
 - (카자흐스탄) 3월 15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, 현재 4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임.
 - 7일간 확진자 증가율이 5%, 2% 미만일 경우 통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며,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일정수준의 통제를 유지할 방침임.⁶⁾
 - 알마티시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건설업과 및 공증사무소 등 금융지원에 필요한 행정 분야의 업무를 허가할 예정임.⁷⁾
 - (우즈베키스탄) 3월 16일부터 △국경폐쇄 △대규모 행사 금지 △타슈켄트 봉쇄 △자가용 이용 금지 등 통제를 강화해왔으며, 모든 조치를 5월 10일까지 연장했음.
 - 정부는 방역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업을 개별적으로 허가하고 있음.⁸⁾
 - 보건상태가 더욱 열악한 키르기스공화국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등 국경이 인접해 있는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,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마스크, 진단용 테스트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4.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부양책

-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부펀드 기금과 국제금융기구 차입금을 코로나19 지원 자금으로 활용 예정
 -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예산 재배분과 국부펀드 기금을 활용한 5조 9천억 텡게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함.⁹⁾
 - 정부주도의 인프라 사업을 통해 25만 4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.
 -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특별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며, 4월 10일 기준 619건이 접수되어 470건이 승인되었고, 그 중 352건 약 1530억 텡게가 집행되었음.¹⁰⁾

5) Eurasianet(2020. 4. 2), 'Chinese business briefing: Force majeure'.

6) Forbes(2020. 4. 17), 'Когда в Казахстане снимут карантин'.

7) Forbes(2020. 4. 16), 'Сагинтаев: Будем проверять предприятия и выдавать «красные карточки»'.

8) Sputnik(2020. 4. 22), 'В Узбекистане разрешили деятельность еще ряда предприятий во время карантина'.

9) 카자흐스탄 총리실 보도자료(2020. 4. 17), 'Антикризисные ме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а: сколько средств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на поддержку граждан и экономики в условиях ЧП'.

-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약 6000억 텡게가 투입되었는데, 4월 10일 기준 647건이 접수되어 45건에 해당하는 1730억 텡게가 집행되었음.¹¹⁾
- 우즈베키스탄은 정부 예산과 국제금융기구 등 대외차입금을 활용해 1조 5960억 쉰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발표했다.¹²⁾
 -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세무감사 중단, 세금 면제, 전기·가스료 감면,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.¹³⁾
 - 향후 6개월간 육아지원금 지급이 자동 연장되었으며, 14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해 임시휴직 중인 가정에 평균임금 100%를 보전할 예정이다.¹⁴⁾

10) Liter.kz(2020. 4. 14). 'Как в Казахстане реализуются антикризисные меры рассказал Досаев'.

11) Kapital.kz(2020. 4. 14), 'Свыше 60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братились за льготными кредитами'.

12) Газета.uz(2020. 4. 15), 'Минфин раскрыл доходы и расходы Антикризисного фонда'.

13) Газета.uz(2020. 4. 3), 'Приняты новые меры для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'.

14) Газета.uz(2020. 3. 19), 'Пакет антикризисных мер.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', Газета.uz(2020. 4. 3), 'Число бесплатных продуктов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увеличено'.